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3월 5일 평양에 온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었다.

문재인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곤 국가정보원 차장, 윤진영 청와대 국정상황실 실장이 참가하였다.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특사와 일행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들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여러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한피줄을 나눈 계례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겨울철올



의 뜻을 전해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당 부문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한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시었다.

원수님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여러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한피줄을 나눈 계례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겨울철올

림픽경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남측특사대표단일행과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남측특사로 부터 수뇌상봉과 관련한 문제인데통령

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특사 대표단사이의 담화는 동포애적이며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특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